發表文

93년산 秋穀 및 94년산 夏穀 수매방침 決定에 즈음하여

○전국의 농어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例年에 없던 冷害와 病蟲害에도 불구하고 농어민 여러분의 정성어린 노력에 힘입어 올해 農事가 잘 마무리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各界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부의 금년도 秋·夏穀수매방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93년산 秋穀과 94년산 夏穀에 대한 수매방침 결정에 있어, 쌀과 보리는 우리 농가의 主所得源일 뿐만아니라,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도 매우 막중한 만큼,

—생산 농가에게는 적정한 소득이 보장되는 수준에서 수매가와 수매량이 결정되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수매수준은 전체경제 운용과도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어려운점 때문에 그동안 관계부처는 물론 당·정간에도 진지한 토의와 의견교환이 있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년에 없었던 冷害라는 예외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추곡수매가와 수매량 결정의 算定基礎가 되는 생산량 추계에 대해 여러가지 相異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정부의 수매방침 결정에 따른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實收穫量 조사가 완료된 후에야 정부방침이 결정되어 농어민 여러분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드리게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부가 오늘 확정한 今年産 추곡수매방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산 추곡수매가격은 92년산 對比 3%引上하였습니다.

—收買價 인상율은 그동안 양곡유통위원회가 추계한 한계생산비 수준과 收買價와 산지쌀값과의 隔差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를 精穀 1등품 가격으로 보면, 80㎏ 가마당 1십2만6천3백60원에서 1십3만1백50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둘째, 收買量은 예년 수준인 9백萬石으로 하였으며, 정부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부가 5백70萬石을 수매하고, 농협을 통한 差額支給 방식으로 3백30萬石을 수매키로 하였습니다.

—농협이 수매하는 3백30만석은 농가로부터는 정부수매와 같은 가격으로 수매하되, 정부收買價와 산지쌀값과의 차액은 정부가 농협에 보전할 것입니다.

—정부의 직접수매와 농협 차액지급 수매를 포함한 전체수매량은 9백만석으로 올해 추곡 생산량 3천2백98만석의 27.3% 수준으로, 이는 최근 5년간 평균 수매비율 23.2%보다도 다소 높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산 夏穀수매방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보리가 겨울철의 중요한 소득작목임을 감안하여 94년산 보리수매가격은 93年産보다 3%引上하여 精穀 1등품 기준 76.5㎏ 가마당 7만3천4백60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보리수매량은 금년과 마찬가지로 농가와 농협과 계약생산하여 출하를 희망하는 全量을 수매키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방침하에 금년도 추곡수매 실시 계획과 이와 관련한 양정개혁의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농민편의를 위해 정부수매 방침 확정전인 지난 11월 5일부터 작년 수매가격으로 실시하고 있는 추곡수매를 이제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인상된 가격으로 수매토록하고 그동안 이미 수매된 물량에 대해서는 정산을 실시할 예정이며, 수매량도 조속히 추가배정하여 농가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零細농가와 냉해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수매량 배정이 많이 돌아가도록 하고, 수매 出荷시기도 다른 농가에 비해 우선하여 실시할 뿐 아니라, 出荷回數도 가능한 한 1회 출하로 끝나게 하는등 수매편의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정부의 이같은 수매방침은 앞으로 국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금년도 추곡수매계획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난 8월에 마련한 양정개혁방안에 따라 93년산 추곡부터 쌀값의 계절진폭이 허용되도록하고, 정부수매곡의 방출방식도 농협을 통한 공매방식으로 전환하여 산지 쌀값이 실질적으로 지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농어민 여러분!

○이번에 정부가 결정한 93년산 추곡收買價 및 收買量에 대해서는 생산농가 입장에서 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겠으나,

—정부로서도 예년에 없던 냉해로 인한 농어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재정능력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는 점을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올해 추곡수매를 위하여 농협收買分을 포함 2兆1천1億원의 수매자금을 동원해야만 했으며, 이를 조달하기 위해 금년에도 1조2천억원이나 되는 高利의 糧穀證券을 추가로 발행해야만 했으며, 이미 발행된 양곡증권의 元利金 상환을 위한 양곡증권까지 합치면 올해에도 총 5兆원이 넘는 양곡증권을 발행하게 되는 형편입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능력 한계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가 계속될 경우 향후 3~4년 후면 매년 10조원이 넘는 양곡증권이 발행되어야 하고 이자부담만도 1조원이나 되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현행 양곡관리제도가 안고있는 이러한 구조적 악순환을 더이상 방치해서는 정부는 물론 생산농민에게도 결코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지난 8월에 수매제도를 비롯, 政府米 방출방식, 정부미 재고관리, 양곡관리기금 운영등 양정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방안을 마련,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쌀값의 계절진폭을 허용하여 농가와 상인들이 쌀을 보유하고 구입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또한 농협의 차액지급 수매, 미곡종합처리장의 확대 건설등으로 민간에 의한 수확기 벼 매입능력을 높여 민간유통이 살아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점을 둠으로써, 정부 직접수매분 이외에 전체생산량의 60%에 달하는 농가의 市場出荷分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동안 싼값으로 공급하고 있는 정부미 방출을 앞으로는 농협을 통한 公賣制로 전환함으로써 쌀값이 시장원리에 맞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여 산지 쌀값을 지지해 나갈 계획이며,

—양곡증권에 의존하고 있는 현행 양곡관리기금의 운영을 내년부터는 수매등 양곡관리에 드는 부족자금을 전액 재정에서 지원토록 함으로써 양곡관리에 드는 비용을 빚을 내어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어민여러분!

○이번에 확정한 추곡收買價와 收買量도 민간유통기능을 살려 농어민의 실질소득을 높여 나가겠다는 이러한 양정개혁방안의 기본 테두리속에서 마련된 것임을 농어민 여러분은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개혁안이 정착되어 쌀의 민간유통기능이 정상화되면 지난 20여년간 되풀이되어온 수매제도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으며 농가는 收穫期에 제값을 받고 쌀을 정상적으로 출하할 수 있게 되어 농가소득이 실질적으로 지지될 수 있을 뿐아니라, 좋은 쌀을 생산하는 농가의 경우 정부수매에 매달리지 않고도 높은 값으로 쌀을 판매할 수 있게될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농어민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쌀 농사에 종사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조성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는 UR협상에 있어서도 쌀에 대해서만은 관세화는 물론 최소시장접근 마저도 허용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농어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의 이러한 확고한 의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生産性 향상과 소비자 기호에 맞는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더욱 노력해 주실것을 다시 한번 當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農林水産部長官 許信行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 협조

○…서울특별시에서 총무 67503—1264호로(93…○
○…년 7월 22일 접수) 사보발간 단체에 대하여 쓰레기…○
○…줄이기 범시민운동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를 요청해…○
○…왔으므로(사보게재후 자료 송부) 다음과 같이 홍보자…○
○…료를 연재로 게재하오니 참조하시고 깨끗한 우리 환…○
○…경만들기에 모두 참여토록 합시다. 〈편집자 주〉…○

〈4〉

쓰레기 분리수거 및 감량화

23、재활용추진협의회란?

시내 아파트 단지에 9백33개, 일반주택지역에 4백87개 등 총 1천4백20개가 조직되어 있고 그 구성원은 각 반단위의 책임자로 구성되어 재활용품 수집, 매각, 판매대금 관리, 주민교육, 홍보 등 재활용업무 전반에 관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24、한국자원재생공사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환경처 산하 공사로 현재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재활용품 수집뿐만 아니라 일반 주택지역인 2백25개동의 재활용품 수집도 담당하고 있어 앞으로 재활용 부분의 역할 증대가 기대됩니다.

25、재활용품 수집체계의 미비로 적기에 수거되지 않아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은?

재활용품 보관용기 설치직후에는 차량과 인원의 부족으로 수거가 지연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수집체계가 정착되어 주 1~2회의 수거주기가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배출이 안되면 선별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타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을 지연시키게 되므로 시민 스스로 지정된 일시와 장소에 종류별로 분리배출하는 시민의식이 합치되어야 조기에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정착될 수 있을 것입니다.

26、각 가정에서 시민알뜰장등을 이용하고자 할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뜰시장은 각 구별로 월 1회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임시시장으로서 헌옷, 가구, 장난감 등을 교환, 판매하거나 농산물을 직거래하고 있으며 각 언론기관과 자치구 소식지에서도 알뜰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벼룩시장 등 중고품을 교환 또는 염가판매하는 정보지등을 이용하거나 각구청 가정복지과에 문의하시면 알뜰한 구매와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27、국내 타 시·도의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사례를 든다면?

경기도 부천시 삼익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을 24종으로 분류하여 품목별로 재생공장에 직접 매각하고 인천시 남동구청에서는 폐냉장고등 대형생활쓰레기를 개조하여 재활용품 보관용기로 활용함으로써 쓰레기도 줄이고 자원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청소

28、쓰레기 청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울에서 하루에 발생되는 쓰레기 1만6천2백톤중에 시직영이 61%인 9천9백톤, 대행업체에서 39%인 6천3백톤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환경미화원등 청소인력은 1만3천6백73명이고 차량과 손수레를 합하여 1만6백81대의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아파트나 일반주택지역은 1~3일에 1회 수거하고, 주요간선도로는 1일 4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29、쓰레기 대행업체란 무엇입니까?

쓰레기대행업체는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을 하는 전문 기업체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내에는 88개의 쓰레기대행업체가 있으며 업체의 담당구역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주고 있는데 주로 아파트등 공동주택과 상가, 시장, 대형빌딩 등입니다.

대행업체란 문자 그대로 구청에서 해야할 일을 민간업체가 폐기물관리법상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시장의 허가를 받아 쓰레기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30、중간집하장에 압축기를 설치했다는데 그 용도는?

난지도매립지에서 경기도 김포에 소재한 수도권매립지로 쓰레기를 수송함에 따라 왕복거리가 33㎞에서 74㎞로 2배이상 연장되어 수송효율을 크게 제고시켜야 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서울시는 중간집하장과 압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집하장은 3백평이상의 적환시설로서 소형차로 수집된 쓰레기를 대형운반차로 옮겨싣는 장소를 말하며 현재 서울시는 16개소의 중간집하장과 47대의 압축기를 이용하여 압축적재함으로써 최대한 수송량을 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31、쓰레기 처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은 연간 1천9백69억원, 시설투자비용이 1천60억원으로 총 3천29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